

## [16]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https://hdl.handle.net/2324/2004996>

---

出版情報：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16, 2016-03-31.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権利関係：

# 松原教授の退職によせて

青木玲子（九州大学理事・副学長）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松原孝俊教授の定年退職によせて、長年の御活躍をたたえ、感謝の意を表するため、一言申し述べさせていただきます。

1998年11月、当時の韓国国務総理の金鐘泌（キムジョンピル）先生に九州大学で御講演をいただく機会があり、そのおり九州大学は金先生に対し名誉博士号を授与いたしました。これをきっかけに、日本における韓国・韓国学研究を支援する目的から、韓国政府は九州大学に対し多額の研究支援をおこなうこととなります。九州大学としては、これに応えるため、日本の国公立大学としては初めて「韓国研究」に取り組む研究施設として、翌1999年12月17日に我が韓国研究センターを設置致しました。

この韓国研究センターの設置に際し、松原孝俊教授は言語文化部から籍を移され、以後定年退職御迎えになる今日まで、ただお一人の専任教授として韓国研究センターの充実・発展に寄与されました。おかげさまで、韓国研究センターは九州大学はもとより国内における韓国研究・韓国学教育の拠点として認知され、また韓国の教育・研究関係者および関係機関にも幅広く関心をもたれる存在として成長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とりわけ特筆すべきは、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を中核とする「世界韓国研究コンソーシアム」の立ち上げでしょう。ハーバード大学、北京大学等からなるこのコンソーシアムは世界中の韓国学研究者の集いの場であり、若い大学院生たちの貴重な研究成果発信の場となっているようです。この組織も松原教授の幅広い人的ネットワークやその信望を抜きには成功しなかったと仄聞しております。

これらに加え、韓国研究センターを基盤に松原孝俊教授がとりわけ強力にすすめてきたのが、大学にはいったばかり学生を対象とした教育プログラムでした。松原教授は「日韓海峡圏カレッジ」を企画・立案し、主体的に運営されてきました。これらのプログラムは日本と韓国の大学生が両国を行き来し、生活をともにし、日韓の近未来の諸課題について考え、語りあうものです。さらに昨年度からは「アジア太平洋カレッジ」と装いを改め、日韓の関係を米国・ハワイという視点から捉え直そうとする、きわめて意欲的な内容となっております。

先般、韓国研究センターは第一回「日韓の教育交流への貢献に対する大臣表彰」をうけるという榮譽に浴しましたが、「日韓海峡圏カレッジ」や「アジア太平洋カレッジ」の成功が文部科学大臣表彰にいたる大きな理由の一つであったと認識しております。すなわち、松原孝俊教授の先見性と大いなる指導力の賜とって過言ではありません。まさしくご勇退される松原孝俊教授の花道を飾るにふさわしい慶事となりました。

末筆になりますが、松原教授には九州大学に理事・副学長として赴任して以来大変お世話になりました。今日までのご厚誼に対しては全く感謝の言葉もみつかりませ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松原教授の今後益々のご健勝とご活躍を祈念して、ご勇退の餞にかえたいと存じます。長い間、まこと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마쓰바라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호에 부쳐

아오키 레이코 (규슈대학 이사·부총장)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마쓰바라 다카토시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1998년 11월 당시 한국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선생님이 규슈대학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규슈대학은 김종필 선생님께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정부는 일본에서의 한국·한국학 연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규슈대학에 많은 연구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슈대학은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일본 국공립대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시설로 1999년 12월 17일에 한국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한국연구센터가 설립될 때, 마쓰바라 다카토시 교수님은 언어문화부에서 한국연구센터로 소속을 바꾸셨고, 이후 정년퇴임을 하시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전임교수로서 한국연구센터의 충실화와 발전에 기여해 오셨습니다. 덕분에 한국연구센터는 규슈대학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한국연구·한국학 교육의 거점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또한 한국의 교육·연구관계자 및 관계기관에도 널리 주목을 받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한국연구컨소시엄’의 조직일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북경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이 컨소시엄은 세계 한국학 연구자가 모이는 자리가 되었으며, 젊은 대학원생들의 귀중한 연구성과를 발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조직도 마쓰바라 교수님의 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두터운 신망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 한국연구센터를 기반으로 마쓰바라 교수님이 특히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쓰바라 교수님은 ‘일한해협권컬리지’를 기획·입안하여 주체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과 한국의 대학생이 양국을 방문하여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일본과 한국이 안고 있는 여러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도부터는 ‘아시아태평양컬리지’로 발전시켜 일한관계를 미국 하와이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그 역할을 논의하는 의욕적인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연구센터는 제1회 ‘일한 교육교류 공헌에 대한 대신 표창’을 받았습시다만, ‘일한해협권컬리지’와 ‘아시아태평양컬리지’의 성공이 문부과학대신 표창을 받게 된 큰 이유의 하나였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마쓰바라 교수님의 선견성과 큰 지도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정년퇴임하시는 마쓰바라 교수님을 축하하는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규슈대학의 이사·부총장이 된 이후 마쓰바라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마쓰바라 교수님의 건승과 활약을 기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큐슈대 한국학연구소의 기억과 마쓰바라 교수

박명규 (서울대 교수, 통일평화연구원장)

필자를 포함하여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가본 적이 없어도 꽤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의 하나다. 대중에게 오랜 양국 간 인연과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친밀감이 있는가 하면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된 거리감이 한켠에 뚜렷하다. 기술산업적 연관효과에 대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독도문제처럼 민감한 영역에서는 불신과 분쟁도 뚜렷하다. 젊은 세대에게는 일본의 문화와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문화적 영향도 적지 않다. 그런 탓에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의 이미지는 복합적이고 다원적이다.

19세기 말 이래의 사회사를 전공한 필자에게도 일본은 언제나 고려되어야 하는 상수와도 같았다. 일본의 근대화과정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19세기 말 이래의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사회변동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근현대사의 전 영역에서 일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고, 따라서 암묵적으로나마 일본근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면서 일본 메이지 유신기 정치변동에 대한 자료들을 하바드 엔칭 도서관에서 찾아 읽었을 때 나는 그것을 일본연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연구의 일환이라고 느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본을 현장에서 경험한 적은 거의 없었다. 내가 글 속에서 감지하는 일본과 실제 21세기 일본은 얼마나 같고 다른지, 어느 정도 민주화되었고 어느 정도 국제화되었는지 실감으로 확인할 기회는 좀처럼 없었다. 당연히 책에서 얻은 지식과 선친의 유학회고담, 그리고 증대하는 학생들의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 사이의 거리감이 점점 커져서 이 지적 불균형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곤 했다.

이런 나에게 큐슈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의 3개월은 매우 귀한 경험이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과 일본인, 일본문화의 양식을 다소나마 느껴본 유익하고 즐거운 시절이었다. 한국학연구소의 조용한 2층 연구실에서, 하카다의 상점거리에서, 후쿠오카 박물관에서, 그리고 숙소에서 학교를 오가던 자전거 통근길에서 나는 일본의 분위기를 느끼려 애썼다. 그 일환으로 큐슈와 한반도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인적, 물적 교류의 흔적들을 탐방하려는 노력도 했다. 근현대의 시간에서는 잡히지 않는 훨씬 오래된 한일의 문화교류의 흔적들을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발견할 때마다 내 식견이 넓혀지는 보람을 경험했다. 또 국가 간 관계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지방차원, 민간수준의 다양한 교류와 접촉의 흔적, 그 오랜 시간성 속에서 변형되고 습합되면서 이어져온 문화교류의 양상들을 확인하는 기회도 가졌다. 그런 경험들은 때로는 새로운 배움으로, 때로는 아픈 교훈으로, 때로는 경이로운 탄성으로 내 좁은 시야를 넓혀주었다.

마쓰바라 교수님을 만난 것은 이 점에서 특히 큰 도움이었다. 마쓰바라 교수님은 당시 한국학연구소의 여러 일들을 도맡고 계셨는데 각종 자료로 빼곡이 차 있었던 연구실과 항상 부지런하게 일에 열중하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당시 한일관계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정치경제적 관점을 중시했던 탓에 깊고 넓게 작용하는 문화의 영역에 관심을 보인 학자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마쓰바라 교수님은 그때도 한일 사이의 오랜 역사적 흐름을 문화와 사람의 차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곤 했다. 구수한 한국어 구사능력과 사람을 편하게 하는 소탈함 속에서 열린 학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여유와 인간미를 강하게 느꼈다. 이후에도 마쓰바라 교수님과 인연은 계속 이어져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또 서울의 여러 학술회의에서 만났는데 교수님의 관심이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인적소통의 오랜 과거를 역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21세기 세계화, 지구화 시대를 맞은 현재 동북아의 미래를 내다보고 학술교류와 문화소통의 필요성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놀라워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제 정년을 맞이하신다니, 아쉬운 생각이 앞선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번잡한 학교 안팎의 일에서 벗어나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평소의 관심과 열정을 이어갈 새로운 전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늘 부지런하고 열정적이신 마쓰바라 교수님이니까 정년이라는 제도적 틀을 훌쩍 뛰어넘는 새로운 생활을 개척하실지도 모르겠다. 다만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그간의 바쁜 생활에서 찾지 못했던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을 만끽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동시에 마쓰바라 교수님이 애써 다져놓은 큐슈대 한국학연구소가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